

『書經』의 ‘天命’과 『管子』의 ‘務時’의 상관관계 연구

- 道德的 天命과 그 實現 方法을 중심으로 -

吳 淸 植*

국문초록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書經』의 ‘天命’과 『管子』의 ‘務時’의 상관관계를 도덕적 천명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방법론의 관점에서 논술한 것이다. 殷周의 교체기는 천명관이 도덕적 천명으로 변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천명은 오로지 한사람에만 주어지지 않고, 믿을 수도 없으니, 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전제조건은 德治이다. 이는 殷代의 절대 권위의 上帝에서 사람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한 德治로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管仲은 ‘務時’의 전제조건은 人本이고, 人本은 富民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의 衣食이 풍요로운 이상적인 상태인 富民은 백성의 경제활동의 기초인 농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농사는 사계절의 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에 순응하는 정치를 펼치는 것이 군왕의 의무이고, 부민을 실현하는 길이다.

천명은 결국 天意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해석으로, 이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덕치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러한 덕치는 時令에 대한 순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順時의 내용은 춘하추동 사계절로 대표되는 시령에 부합하게 정치명령을 시행하여 백성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논자는 천명이 바로 順時라고 보고, 특히 『管子』의 ‘務時’에 대한 실천적 사고가 도덕적 천명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임을 논술하였다.

[주제어] 『書經』, 『管子』, 天命, 務時, 富民, 陰陽, 五行

목 차

I. 序 論	IV. 道德的 天命의 實現과 時令
II. 『書經』의 天命과 ‘道德天’	V. 結 論
III. 『管子』의 德治와 ‘務時’	

* 원광대학교 시간강사 / ocs2997@hanmail.net

I. 서 론

중국의 고대역사에서 殷周의 교체기는 어느 시대의 왕조교체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주의 역성혁명이 갖는 정치적인 왕조교체의 의미 보다도, 주 왕조가 표방하였던 정치사상의 관점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은대는 王權神授 관념에서 上帝라고 일컬어지는 지고무상한 존재에 의해 절대적인 왕권을 부여받았고, 상제는 은왕의 절대권력을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정치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제외된 존재였다. 그러나 주는 小邦이 大邦을 정벌하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개창하였고, 내외의 중대한 도전을 극복해야 하였기 때문에, 은과는 다른 정치적 입장을 천명해야만 하였다. 그것이 바로 道德的 天命觀이다. 이는 은의 상제를 天命으로 대체한 것이고, 은의 왕권신수를 德治로 대체한 것으로, 신생국이 직면한 정치적 위기를 정치사상의 변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던 일종의 정치적 구호에 속한다.

천명은 은주 교체기 정치변혁의 정당성 근거로 제시된 것이지만, 정치사상 면에서는 道德과 人間의 주체 의지가 최초로 반영된 개념이다. 천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因素는 바로 왕의 德政 여부이다. 주 왕조의 吉凶과 長短은 상제가 아닌 천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왕을 ‘王’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天子’라고 칭하기도 한 것이다.¹⁾ 천자는 곧 ‘하늘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周王은 神과 人間이 결합된 이중적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이 때문에 주왕에게는 하늘에 제사지내고(祭天) 하늘과 짝할 수 있는(配天)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²⁾ 주왕은 하늘을 代理해서 인간세계에 임하고, 하늘을 대리해서 백성을 생육하고 교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지위와 질서를 ‘德’이라고 표현한 것이니, 덕은 주왕에게는 왕권을 소유할 수 있는 당위성과 합법성을 보증하는 한편, 백성에게 善政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부여하는 속박 장치로 기능하였다. 덕의 이러한 양면적 속성으로 인해 주왕은 덕을 정치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당연한 책무로 받아들여야만 하였을 것이다.

『서경』에서는 이를 “保民”³⁾이라 하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제시한 강령이 “明德慎罰”⁴⁾이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규범이 “편안하여 逸豫를 좋아하지 않는 것”⁵⁾과 “稼穡(농사)의 어려움을 아는 것”⁶⁾이다. “국기를 소유한 자가 부지런함으로써 흥기하고 편안함으로써 廢하지 않은 자가 없고, 土農工商의 일 가운데 농사보다 수고로운 것이 없고 生民의 功은 농사보다 더 성대한 것이 없다.”⁷⁾고 하여, 안일함을 경계하고 농업을 권장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稼穡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가색은 단순한 농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삶을 기탁하고 살아가는 경제기반이기 때문에, 왕은 백성이 농사를 잘 할 수 있도록 農時

1)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2008, 581쪽.

2) 劉澤華, 『中國政治思想通史·先秦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44쪽.

3) 『書經』, 『周書』, 『康誥』, “用康保民.”

4) 『書經』, 『周書』, 『康誥』, “明德慎罰.”

5) 『書經』, 『周書』, 『康誥』, “無康好逸豫.”

6) 『書經』, 『周書』, 『無逸』, “知稼穡之艱難.”

7) 成百曉(譯註), 『書經集傳下』, 『周書』, 『無逸』, 傳統文化研究會, 2006. 238~240쪽.

에 맞는 政令을 펼쳐 경제적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덕치의 근본임을 인식해야 한다.

논자는 중국의 정치사상이나 철학사상에서 덕치를 논할 때 ‘順天’·‘順時’·‘順民心’을 중요한 요소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고, 政令으로서의 順時를 이론적 체계 뿐만 아니라 현실 정치에서도 구체적으로 실현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管仲이라고 본다. 관중은 “四時를 알지 못하는 것이 나라의 根基를 잃는 것”⁸⁾이라고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道는 반드시 ‘富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⁹⁾ “나라가 부유하고 식량이 많은 것은 농사에서 생겨난다.”¹⁰⁾고 말하므로써, 정치에서의 덕치의 실현은 경제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함을 역설하였다. 경제적 토대의 중심은 농업생산활동에 있으므로, 백성이 농사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춘하추동 사계절의 時宜에 맞게 政令을 시행해야 한다.

은주 교체기와 관련한 천명에 대한 論著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특히 철학과 정치학 방면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의 경우 이 시기의 천명관에 대한 근대적인 입장에서의 연구는 王國維와 郭沫若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방법론적으로도 고전의 천명·예악·도덕·윤리·민본 등과 같은 철학적·정치적 접근¹¹⁾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갑골문과 고고학적 출토문헌자료를 통한 실증적 연구¹²⁾도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학¹³⁾과 정치학¹⁴⁾ 방면에 집중되고, 특히 유가 인문 사상의 來源으로 보는 시각¹⁵⁾에서 쓰여진 논저가 많다.

『관자』에 대한 연구는 『관자』라는 텍스트의 성격상 철학¹⁶⁾·정치경제¹⁷⁾·음양오행¹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은주 교체기의 도덕천에 대한 선행연구의 주된 방향은 도덕천의 개념·래원·전개 등과 같은 현실의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유가의 관념적 도덕 이상주의¹⁹⁾ 중심으로 논술된 측면이 많다. 위에서 살펴본 논저들은 관점에 따라 연구목적에 맞게 충실하게 논술되었으나, 이를 현실세계에서 어

8) 『管子』, 「四時」, “不知四時,乃失國之基.”

9) 『管子』, 「治國」, “治國之道,必先富民.”

10) 『管子』, 「治國」, “富國多粟生於農.”

11) 李忠林, 「皇天與上帝之間」, 『史學月刊』 2, 2018; 李競恒, 「天命中的王權與神祇」, 『書屋』, 12, 2017. 외 다수

12) 李友廣, 「先期天命觀念溯源」, 『理論界』 2, 2009. 외 다수.

13) 宋寅昌, 「先秦儒學에 있어서의天命思想에 관한研究」, 충남대박사논문, 1987; 孫世濟, 「天道觀의 변천에 관한研究」, 성균관대박사논문, 1992; 임현규, 「天命과 倫理」, 온지학회, 『濫知論叢』, 30, 2012; 李澤龍, 「중국先秦 시대의 命論研究」, 성균관대박사논문, 2012; 徐政燁, 「殷周代上帝 관념과 周代 禘 의례의 관련성 및 그 변화 양상」,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95, 2016. 외 다수.

14) 金明河, 「中國先志四家の政治思想에 관한研究」, 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4; 장현근,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 천명 관념의 등장과 근권의 정당화」,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73, 2015. 외 다수.

15) 김충열, 『중국철학사1·중국철학의원류』, 예문서원, 1994. 외 다수.

16) 張立文, 「管子道德和合新釋」, 『社會科學戰線』 2, 2010; 장승구, 「『管子』의 철학사상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45, 2015. 외 다수.

17) 趙淸文, 「論『管子』의 “以人爲本”思想」, 『管子學刊』 4, 2004; 張越, 「『管子』富民思想及其現代價值」, 『齊魯學刊』 6, 2017; 윤대식, 「경제가 管仲과 텍스트 『管子』 사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22, 2016; 김태명, 「管子의 정치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5, 2008. 외 다수.

18) 白奚, 「中國古代陰陽五行說의合流」, 『中國社會科學』 5, 1997; 이명재, 「『管子』의陰陽五行論」, 단국대동양학연구원, 『東洋學』 69, 2017. 외 다수.

19) 김충열, 위의 책, 209쪽. 특히 김충열은 관중을 “현실을 현실대로 정리해 나가면서 가능한 범위 내의 이상을 추구하는 실리적이고 공리적인 유가”라고 인정하고(김충열, 위의 책, 209쪽.), 또한 “관중 사상의 핵심을 ‘삶’ 자체로 보았고, 이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경제와 도덕”이라고 보았다(김충열, 위의 책, 214쪽.).

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측면이 있다. 논자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단서를 『관자』의 ‘務時’에서 찾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치와 경제의 결합으로서의 치국의 요체인 稼穡과 富民을 논술하고, 이를 위한 기본 환경이 되는 사계절의 순환에 부합하는 政令을 시행해야 함을 논술함으로써, 『서경』에서 강령 형식으로 제시된 도덕적 천명이, 『관자』에서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되는 상관관계성을 논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II. 『書經』의 天命과 道德天

1. 殷周의 交替와 天命 觀念의 政治的 利用

중국의 고대사회와 철학사상에서 극적인 대변혁을 상징하는 사건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殷周의 역성혁성일 것이다. 이는 단순히 왕조의 교체라는 의미 이외에 정치나 문화 방면에서 ‘인간’과 ‘도덕’이 전면에 등장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치와 문화의 변혁은 殷周의 시기보다 심한 것은 없다.……은주 사이의 대변혁은 그 표면으로부터 말하면 一姓一家의 흥망과 도읍의 이전에 지나지 않으나, 이면으로부터 말하면 옛 제도가 폐해지고 새 제도가 일어나며, 옛 문화가 폐해지고 새 문화가 일어난 것이다.……그 宗旨는 상하를 道德에 납입하여 천자·제후·경대부·사·서민을 합해서 하나의 道德團體를 이룬 것이다.……제도와 典禮는 도덕의 그릇이니, 周人の 爲政의 精髓는 실로 여기에 있다.……²⁰⁾

은과 주의 정치와 문화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도덕 관념의 유무인데, 이는 바로 ‘天’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부터 시작한다. 은대의 卜辭에서는 至上神을 ‘帝’나 ‘上帝’로 칭하였고, 절대로 ‘天’이라고는 칭하지 않았으나 ‘天’이라는 글자는 본래 있었다. 복사에서의 천은 ‘天’字와 동의어로 쓰였거나, 또는 사람의 형체를 그린 것으로 특별히 거대한 ‘頭腦’가 있는 것을 표시하였으니, 두뇌는 인체의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높은 곳을 모두 天이라고 칭하였다.²¹⁾ 따라서 天이라는 글자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신비한 뜻이나 인격화된 개념이 없이 단순히 ‘大’나 ‘頭腦’라는 의미로 쓰였다.

은대의 주요 경제는 농업이었는데, 특히 집단노동·동물의 使役·灌溉·施肥 등의 농업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농업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²²⁾ 농업 생산성이 증대됨에 따라 거대한 부족이 생겨났고, 그 결과로 부족 간의 농지와 노예 쟁탈을 위한 투쟁이 더욱 격렬하여졌다. 이와 같이 복잡한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20) 王國維, 『觀堂集林 上』 「卷十」, 上海: 上海書店, 1992, 2쪽.

21) 郭鼎堂, 『先秦天道觀之進展』, 上海: 商務印書館, 1935, 6쪽.

22) 尹乃鉉, 『商周史』, 民音社, 1984, 54-59쪽.

위해서 은인에게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최고의 통치자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최고 통치자의 권위는 지상신인 상제가 保佑해준다는 관념을 만들어냈다.²³⁾ 이는 마치 상제의 至上性이 殷王의 지상성을 반영하듯이, 상제는 은족의 지상신이고 은왕의 보호신과 상징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²⁴⁾

이와 같이 은인에게 상제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인식되다 보니 國事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제에게 점을 쳐서 물었다.

상제가 관리하는 사항은 농사의 작황·전쟁·도읍건설·왕의 행동이었고, 그의 권위와 명령이 미치는 대상은 天時·王·我·畀이었다.²⁵⁾

은대의 상제는 자연 天象을 관장하는 주재였기 때문에 상제의 명령은 자연 천상으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특히 바람이 불거나 비가 내리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등도 상제가 관장하는 것이었고, 이는 농업생산활동과 관련이 깊었으니 은대의 상제는 농업생산의 신이었다.²⁶⁾ 상제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好惡도 있으며, 일체의 天時상의 風雨晦冥과 인사상의 길흉화복을 主宰하는 존재로 여겨졌으나,²⁷⁾ 은왕과의 혈연관계는 전혀 없었다. 은왕은 先王이나 기타 여러 신을 통해 상제에게 비를 구하고 풍년을 기원하거나 혹은 전쟁의 승리를 기도할 뿐이었으니,²⁸⁾ 은인의 상제는 여전히 자연 천상의 주재였고 절대적 권위를 가진 존재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도덕적 자각이나 주체적인 의지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은왕이 상제를 대신해서 인간세계를 통치하는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은왕은 자신의 모든 통치행위가 상제에게서 절대적 권위를 위임받은 것으로 받아들였고, 자신의 권력은 바로 상제의 지고무상한 권능에서 비롯된 것임을 자임하였다. 이른바 상제의 명령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상제의 名義를 假借한 은왕의 명령인 것이다.²⁹⁾ 이렇게 은왕의 권위나 권력이 절대화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專制가 강화되었고, 급기야는 상제와 동일시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관념으로 인해 은왕 1인의 전제만 인정되었다.

……각각 그 거처를 장구히 하여 너희가 힘써 ‘나 한 사람’이 만든 꾀를 따르도록 하라.³⁰⁾

‘나 한 사람(予一人)’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천하에 오로지 나 한 사람인 은왕만이 존재하고 은왕만이 천하를 전제할 수 있다는 기초위에서 가능하다. 따라서 ‘나 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이 은왕의 명령과 결정에 절대 복종해야 함을 의미한다.

23) 『詩經』, 「商頌」, “濬哲維商, 長發其祥. 洪水茫茫, 禹敷下土方. 外大國是疆, 幅隕既長. 有娥方將, 帝立子生商.”

24) 劉澤華, 앞의 책, 25쪽.

25) 陳夢家, 앞의 책, 571쪽.

26) 陳夢家, 위의 책, 580쪽.

27) 郭鼎堂, 앞의 책, 10-11쪽.

28) 陳夢家, 앞의 책, 580쪽.

29) 葛榮晉, 『先秦兩漢哲學論稿』,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31쪽.

30) 『書經』, 「商書」, 「盤庚上」, “……各長于厥居. 勉出乃力. 聽予一人之作猷.”

너희 만민이 살려고 하지 않고 나 한사람의 계책과 마음을 함께 하지 않으면 先后께서는 너희들에게 罪疾을 많이 내리시며 말씀하시를……³¹⁾

모든 백성은 나 한 사람의 계책과 한마음이 되어야 하니 생각과 행동 모두 은왕의 의지와 결정을 거역할 수가 없다. 만약에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거나 자손이 끊기게 된다. 모든 백성의 생각과 행동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은왕인 나 한 사람한테 달려있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은 천제를 받들고 그의 권위를 대신하며, 조상의 권능을 계승하여 백성에게 죄벌을 내릴 수 있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고 生死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제권력을 소유하는 것이다. 나 한 사람인 은왕의 권력이 절대화 됨에 따라 죽은 왕에게 ‘帝’라는 호칭을 붙였는데, 특히 紂王은 스스로 ‘帝辛’이라 칭하였고, 賦稅를 무겁게 하고 간언하는 신하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등³²⁾ 온갖 사치 향락과 폭정을 일삼았다.

2. 周의 憂患意識과 道德的 天命

小邦인 周가 大邦인 殷을 정벌한 이후에도 주무왕은 殷의 上帝 관념을 이어받아 ‘나 한 사람(予一人)’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을³³⁾ 뿐만 아니라 국사를 결정할 때에 占卜과 祭祀를 활용하였다.³⁴⁾ 또한 殷商의 故土를 紂王의 아들인 武庚에게 통치하게 하였고, 이를 자기의 세 형제에게 감시하게 하였다. 주무왕이 죽자 어린 成王을 도와 周公이 섭정하였으나, 무경을 감시하던 다른 세 형제가 주공이 왕위를 차지할 것을 의심하여 무경과 공모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주공은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小邦인 周가 어떻게 하면 은의 유민들을 안정적으로 잘 다스려서 통치를 공고화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天命은 오로지 한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니 너는 명심해라. 나의 제사를 끊지 말고 너의 임무에 힘쓰며 폭넓게 듣고서 하민을 보호하고 다스려라.³⁵⁾

주공은 은의 상제의 지고무상한 권위에 대해 수정을 가하였다. ‘천명은 오로지 한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惟命不于常)’는 것은 하늘의 의지와 명령은 改變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한 왕조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은대의 전통적인 상제관념에 반대하여 제시된 사상이다. 이는 소방인 周가 대방인 은을 정벌한 이후에 직면하게 된 혼란한 정치상황에 대한 근심걱정을 반영한

31) 『書經』, 「商書」, 「盤庚中」, “汝萬民乃不生生. 暨予一人猷同心. 先后丕降與汝罪疾. 曰. ……”

32) 『史記』, 「殷本紀」, “……好酒淫樂. 嬖於婦人. 愛妲己. 妲己之言是從. 於是使師涓作新淫聲. 北里之舞. 靡靡之樂. 厚賦稅以實鹿臺之錢. 而盈鉅橋之粟. 益收狗馬奇物. 充仞宮室. 益廣沙丘苑臺. 多取野獸蜚鳥置其中. 慢於鬼神. 大聚樂戲於沙丘. 以酒為池. 縣肉為林. 使男女裸相逐其間. 為長夜之飲. 百姓怨望而諸侯有畔者. 於是紂乃重刑辟. 有炮烙之法. ……”

33) 『書經』, 「周書」, 「金縢」, “乃卜三龜. 一習吉. 啟籥見書. 乃並是吉. 公曰. 體. 王其罔害. 予小子新命于三王. 惟永終. 是圖. 茲攸俟. 能念予一人.”

34) 『書經』, 「周書」, 「召誥」, “卜宅. 厥既得卜. 則經營. ……越三日丁巳. 用牲于郊. 牛二. 越翼日戊午. 乃社于新邑. 牛一羊一豕一.”

35) 『書經』, 「周書」, 「康誥」, “惟命不于常. 汝念哉. 無我殄享. 明乃服命. 高乃聽. 用康乂民.”

것으로,³⁶⁾ 신생왕권 초기의 절박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우환의식이다.³⁷⁾ ‘천명은 오로지 한사람에 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관념은 夏商周 삼대의 왕조 교체라는 역사사실에 기초해서 제시된 天命 轉移 이론으로, 주왕조가 은을 대신해서 정권을 잡은 역성혁명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구호의 성격이 짙다.

이러한 천명관념은 주가 은을 정벌해서 왕권을 잡은 단순한 역사사건에 기초해서 만들어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하상주 삼대 왕조의 교체를 통시적으로 고찰해서 도출한 역사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이는 왕조교체라는 역사사실에 법적성이나 인과관계를 규명해서 주왕조 건립의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내가 들으니 상제가 편안하도록 해 줌에 夏나라가 편안함으로 나아가지 않자, 상제가 降格하여 이 하나의 의향을 보셨는데 능히 상제를 따르지 않고 크게 淫泆하고 변명하는 말을 하였다. 이에 하늘이 생각하고 들은 채하지 않으시고는 그 큰 명을 폐하여 벌을 내리셨다. 이에 네 선조이신 成湯을 명하여 하나리를 개혁하시어 준걸스런 백성으로 사방을 다스리게 하셨다.……이에 상제께서 보호하지 않으시어 이와 같은 큰 망함을 내리신 것이다. 하늘이 殷나라에 命을 주지 않으심은 그 德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릇 사방의 작고 큰 나라가 망함은 벌에 말이 있지 않음이 없다.³⁸⁾

상제가 하나라에게 천명을 부여하여 하왕조가 건립되었으나, 음일하고 변명하는 말을 하여 천명을 폐하고 벌을 내렸으며, 이어서 은나라가 천명을 부여받았다. 은도 成湯으로부터 帝乙에 이르기까지는 덕을 밝히고 제사를 공경하여 상제가 은나라에 천명을 부여하여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나 後嗣王이 크게 음탕하고 방일하여 상제가 다시 천명을 거두어 망하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삼대의 왕조교체는 완전히 천명의 轉移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하늘은 왕권을 부여할 수도 있지만 왕권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인식하에서만 가능한 일이다.³⁹⁾ 즉, 상제가 천명을 부여하고 박탈하는 것은 상제가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인과관계와 일정한 법칙성이 있음을 제시한 것이다. 주공은 이러한 인과관계와 법칙성을 ‘그 덕을 밝히지 않은 것(不明厥德)’과 ‘罰에 말(죄목)이 있는 것(有辭于罰)’에서 찾는다. 즉, 상제가 ‘덕을 밝히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한 명령을 어기면 천명을 빼앗아 다른 왕조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천명 전이의 관건은 주나라 사람인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직 사람에게 달려 있다”⁴⁰⁾고 말하는 등, 하늘을 믿지 말고 오직 문왕께서 공손히 하여 밝힌 덕을 계승하라고 하였다.

하늘은 믿을 수 없으나 우리의 도리는 오직 寧王(武王)의 德을 연장하여 하늘이 문왕께서 받으신 명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다.⁴¹⁾

36) 陳來, 『古代宗教與倫理』, 北京: 三聯書店, 2017, 165쪽.

37) 『書經』, 「周書」, 「大誥」, “予惟小子.若涉淵水.予惟往.求朕攸濟.”

38) 『書經』, 「周書」, 「多士」, “我聞.曰.上帝引逸.有夏不適逸.則惟帝降格.嚮于時夏.弗克庸帝.大淫泆有辭.惟時天.罔念聞.厥惟廢元命.降致罰.乃命爾先祖成湯.革夏.俊民.甸四方.……惟時上帝不保.降若茲大喪.惟天不畀.不明厥德.凡四方小大邦.喪.罔非有辭于罰.”

39) 王保國, 『兩周民本思想研究』, 北京: 學苑出版社, 2004, 47쪽.

40) 『書經』, 「周書」, 「君奭」, “嗚呼.君.已曰.時我.我亦不敢寧于上帝命.弗永遠念天威越我民.罔尤違.惟人.”

41) 『書經』, 「周書」, 「君奭」, “天不可信.我道.惟寧王德.延.天不庸釋于文王受命.”

하늘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문왕의 德政만이 왕권을 연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덕목이므로, 문왕의 덕정을 시행해야 하늘이 왕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너의 크게 드러나신 아버지 문왕께서 능히 德을 밝히고 형벌을 삼가셨다.⁴²⁾

문왕이 천명을 받아 천하를 얻은 것은 덕을 밝히고 벌을 삼가셨기 때문이고, 하나라와 은나라가 천명을 잃은 것은 오직 덕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⁴³⁾ 덕은 왕조의 생명 연장과 장기적인 치안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인 것이다. 덕이 있어야 위로는 하늘의 도움을 얻고 아래로는 백성의 화합을 얻으며, 하늘의 도움이 있고 백성의 화합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고 오래도록 망하지 않을 것이다. 明德은 주공이 덕을 써서 하늘의 의향을 설명한 것으로, 덕의 興廢를 하상주 교체의 역사원인으로 본 것이다.⁴⁴⁾ 愼罰은 덕정의 실천 가운데 하나로 은나라 紂王의 炮烙之刑과 같은 형벌의 남용이 민심의 이반을 불러와 나라를 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민심의 안정을 위해 형벌을 법전에 근거해서 시행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같이 은나라 유민들한테는 ‘천명은 오로지 한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惟命不于常)’는 논리로 주의 통치를 받아들일 것을 설복하고, 신흥국가인 주의 통치자들에게는 ‘하늘은 믿을 수 없다(天不可信)’는 논리로 천명만을 믿고 淫泆에 빠져서 德을 잃지 말라고 경계한 것이다. 이도 또한 주나라의 장기적인 치안에 대한 정치적 우환의식의 발로이다. 임금이 德을 밝혀 일을 하면 천하가 공경하고 믿지 않음이 없으므로, 정치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입장에서 덕을 베풀 것을 권하였다. 천명은 언제든 전이될 위험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皇天은 친한 사람이 없어 德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며, 민심은 항상함이 없어 은혜롭게 하는 이를 그리워한다.⁴⁵⁾

하늘은 어느 특정한 누구와의 친소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덕이 있는 자만을 도울 뿐이다. 백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임금을 항상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임금만을 따른다. 하늘은 大公無私 하나, 이는 하늘이 군왕의 모든 作爲에 대하여 관심이 없음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의 無私性은 하늘의 절대 正義의 성격에서 온 것이다.⁴⁶⁾ 하늘과 백성은 가치지향이 똑같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하늘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고,⁴⁷⁾ 하늘은 백성이 보는 것으로부터 보며 듣는 것으로부터 듣는다.⁴⁸⁾

덕은 천명을 부여받는 유일한 전제조건이다. ‘惟德是輔’와 같은 德政과 ‘惟惠之懷’와 같은 惠民 사상은 은의

42) 『書經』, 「周書」, 「康誥」, “惟乃丕顯考文王. 克明德愼罰.”

43) 『書經』, 「周書」, 「召誥」, “惟不敬厥德.”

44) 劉澤華, 앞의 책, 39~40쪽.

45) 『書經』, 「周書」, “蔡仲之命”, “皇天無親. 惟德是輔. 民心無常. 惟惠之懷.”

46) 傅佩榮, 『儒道天論發微』, 臺北: 聯經出版社, 2010, 57쪽.

47) 『書經』, 「周書」, 「泰誓上」, “民之所欲. 天必從之.”

48) 『書經』, 「周書」, 「泰誓中」,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절대권위의 상제관을 도덕적인 천명관으로 수정한 것으로, 사람의 주동적인 노력과 덕행을 강조한다. 은의 상제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덕정이나 해민과 같은 가치성이 설 곳이 없으나, 주의 도덕적 천명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는 우환의식과 강박관념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Ⅲ. 『管子』의 德治와 務時

1. 德治와 人本

『管子』라는 책을 누가 언제 썼는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많은 논쟁이 있으나, 제나라 宣王과 湣王 시기에 직하학궁에서 활동했던 이름이 전해지지 않는 제 지역의 토착 학자들이 管仲에 가탁하여 편집하고 창작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그 편집의 목적은 제학 본래의 특색을 유지하고 그 정신을 고양시키며 제 지역 고유의 사상과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외래 학자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직하학궁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려는 것이었다.⁴⁹⁾ 이러한 이유로 『管子』에는 사상면에서 유가·도가·묵가·법가·병가·음양가 등의 다양한 유파의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고, 내용면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농업·時令 등 인간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것이 특징이다.

관중의 성공적인 정치 역정에 대한 공자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⁵⁰⁾ 제환공이 春秋 五霸 가운데 으뜸인 것은 모두 관중의 정치역량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관중이 활약했던 춘추시대는 禮樂이 崩壞되어 제후들이 천하를 다투던 혼란한 시대였기 때문에, 오히려 周代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德治에 대한 향수가 더 컸을 것이다.

德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動員하지 않아도 빨리 오고, 서로 말해주지 않아도 알고, 힘써 행하지 않아도 일이 이루어 지고, 부르지 않아도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德입니다.⁵¹⁾

관중은 마치 하늘이 發動하지 않아도 사계절이 제때에 운행하여 만물이 化成되는 것에 비유하여, 군왕이 덕이 있으면 군왕이 發動하지 않아도 政令이 아래로 베풀어져서 모든 功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德治는 위정자 자신의 도덕적 수양과 행위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덕이 있는 자만이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無德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면 위태로운 법이다. 군주의 덕치에 대한 입장은 도덕적인 品性과 行爲를 모두 포괄한다. 이른바 德治는 도덕적인 수양을 거쳐 양호한 도덕품질을 배양하고, 나아가 도덕수양을 도덕

49) 바이시(저), 이임찬(역), 『직하학연구』, 소나무, 2015, 421쪽.

50) 『論語』, 「憲問」, “桓公九合諸侯.不以兵車.管仲之力也.……管仲相桓公霸諸侯.一匡天下.民到于今受其賜.”

51) 『管子』, 「戒」, “以謂德者.不動而疾.不相告而知.不爲而成.不召而至.是德也.”

행위 가운데에 주입하여, 백성을 위해서 道德典範을 세우고, 백성의 도덕행위를 교정하여, 윗사람은 행하고 아랫사람은 본받으며 천하가 크게 다스러지는 정치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⁵²⁾

사랑하고 낳고, 기르고 완성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나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아서, 천하가 친히 하는 것을 德이라 말한다.⁵³⁾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고 惡行을 고쳐 善政을 베풀지라도 스스로 그 공을 자처하지 않으면 천하 사람들이 시장으로 달려가듯이 우러러 보는 것을 덕이라 말하는데, 이는 군왕의 솔선수범이 전제 되어야 한다. 관중은 ‘政’을 ‘正’이라고 해석한다.⁵⁴⁾ 正은 만물의 명칭을 바로잡아 정하는 것이고, 백성으로 하여금 사회규범을 지키게 하는 것이며, 過한 행위를 制止하고 不及한 행위를 보충하는 것이다. 백성이 바르게 행동하고 사회규범을 지키는 것은 모두 군주 자신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관중의 德治의 기저에는 ‘人本’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인본에는 중국 전통의 民本 관념이 함축되어 있다. 이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견고하여야 나라가 튼튼하다.”⁵⁵⁾는 것과 같이, 역대의 사상가나 정치가가 모두 군왕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에 모범으로 삼는 관념이다.

제나라의 백성은 公의 근본입니다. 백성이 배고픔을 매우 근심하나 세금은 무겁고, 백성이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나 형벌은 혹독하고, 백성이 수고로움에 상했으나 위에서 일처리 함은 때에 맞지 않습니다.⁵⁶⁾

포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을 중시해야 한다. 백성의 세금을 경감시켜주면 배고픔을 걱정하지 않을 것이고, 형벌을 느슨하게 해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백성들의 고충을 처리함이 제 때에 알맞게 하면 수고로움에 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관중은 백성을 국가의 治亂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으로 인식하였다.

霸王의 시작하는 바는 사람(백성)으로 근본을 삼는다. 근본이 다스러지면 나라가 굳건해지고, 근본이 어지러우면 나라가 위태롭다.⁵⁷⁾

근본이 다스러지는 것과 어지러운 것은 모두 군왕에게 달려있다. 한 예로 堯舜의 태평성대는 그 때의 백성이 본래 잘 다스려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桀紂의 淫行과 혼란은 그 때의 백성이 본래 어지러워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 윗사람이 명철하면 아랫사람이 공경하고, 정치가 공평하면 사람들이 편안하고, 병사

52) 張連偉, 『管子哲學思想研究』, 四川: 巴蜀書社, 2008, 142쪽.

53) 『管子』, 「正」, “愛之生之. 養之成之. 利民不德. 天下親之. 曰德.”

54) 『管子』, 「正」, “政者. 正也.”

55) 『書經』, 「夏書」, ‘五子之歌’, “民惟邦本. 本固邦寧.”

56) 『管子』, 「霸形」, “齊國百姓. 公之本也. 人甚憂飢. 而稅斂重. 人甚懼死. 而刑政險. 人甚傷勞. 而上舉事不時.”

57) 『管子』, 「霸言」, “夫霸王之所始也. 以人爲本. 本理則國固. 本亂則國危.”

들이 잘 교육받고 화합하면 전쟁에서 적을 이기고, 능력있는 사람을 쓰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고, 어진 사람과 친하면윗사람이 위태롭지 않고, 어진 사람한테 맡기면 제후가 복종한다.⁵⁸⁾ 군왕은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서 정사를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民心의 향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민심은 政權의 장기적인 치안과 政令의 효율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천하의 지극함이다.⁵⁹⁾

'사람에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은 民心을 얻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민심을 얻는 방법은 백성을 이롭게 해주는 것 만한 것이 없고, 백성을 이롭게 해주는 방법은 백성을 가르치는 것 만한 것이 없다.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밭을 일구어서 國邑을 實하게 하고, 조정을 한가롭게 하여 官府를 다스리고, 公法을 행하게 하고 私曲을 금지시키며, 倉廩을 實하게 하고 감옥은 비게 하고, 어진 사람은 등용하고 간사한 사람은 물리친다. 정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와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작게는 전쟁에서 패하여 땅을 잃고, 크게는 자신이 죽거나 나라가 망하게 된다.⁶⁰⁾ 백성을 이롭게 하고 잘 교화하는 것이 군왕 자신과 나라의 안정,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부국강병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이다.

2. 牧民과 務時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관한 관중의 정치사상의 일단은 다음으로 대표된다.

무릇 토지를 소유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힘써야 할 것이 四時에 있고, 지켜야 할 것이 倉廩에 있다.⁶¹⁾

四時는 봄 여름에는 밭갈고 씨뿌리며, 가을 겨울에는 추수하고 저장하는 농업 생산 활동과 관계가 있다. 倉廩은 각종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축적된 財富과 관련이 있다. 국가가 부유해지고 백성이 재부를 축적하여 衣食이 풍족해지면 백성이 예절도 알고 榮辱도 알게 되어 잘 다스려진다.⁶²⁾ 四時와 관련한 정치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이다. 고대 중국은 국가 경제의 기초가 농업이었기 때문에 모든 정치명령은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농업은 성격상 天時로 대표되는 기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특히 일년의 사시변화와

58) 『管子』, 「霸言」, “上明則下敬. 政平則人安. 士教和. 則兵勝敵. 使能則百事理. 親仁則上不危. 任賢則諸侯服”

59) 『管子』, 「五輔」, “人. 不可不務也. 此天下之極也.”

60) 『管子』, 「五輔」, “得人之道. 莫如利之. 利之之道. 莫如教之以政. 故善爲政者. 田疇墾而國邑實. 朝廷閒而官府治. 公法行而私曲止. 倉廩實而囹圄空. 賢人進而奸民退. ……不能爲政者. ……小者兵挫而地削. 大者身死而國亡.”

61) 『管子』, 「牧民」, “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62) 『管子』, 「牧民」, “倉廩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같은 장기간의 生長收藏 과정에 의해 凶豊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모든 정치 행위가 반드시 사시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농업 생산의 증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치명령에는 때(時)가 있다. 時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天時가 오는 까닭을 보고 순응해야 하는데, 五官이 모호하고 六府가 혼암하니 누가 이를 알겠는가? 오직 성인만이 사시를 안다. 사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나라의 根基를 잃는 것이다.⁶³⁾

政畝를 시행함에는 반드시 時畝에 의해야 하는데, 의거할만한 시령이 없으면 천시가 오는 것을 관망하고 순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천시를 알고 이에 의지하여 정사를 펼치는 것이 곧 국가의 근본이고 백성을 다스리며 재물을 확충하는 길이다. 천시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順時하지 않고서 政事를 펼치면 반드시 패망하게 된다. 따라서 사시를 알지 못하는 것은 곧 나라의 근본을 잃는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근본은 천시를 얻는 것에서 출발해야 궁극적으로 倉廩이 충실해지고 衣食이 풍족해질 것이다.

천시에 순응하는 것은 동지와 하지의 음양 두 기운의 昇降과 消息에 맞추어 政畝를 시행하고, 오행의 사시 변화에 맞추어 백성들의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順時 여부가 국가의 治亂과 興衰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위정자에게는 마땅히 힘써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陰陽이라는 것은 천지의 大理이고, 四時라는 것은 음양의 大經이며, 刑德이라는 것은 사시의 숨이 다. 형덕이 時에 부합하면 福을 놓고 위배하면 禍를 낳는다.⁶⁴⁾

이는 『관자』의 음양 시령 사상의 핵심이다.⁶⁵⁾ 일년을 음양의 두 기운으로 나누어 천지의 근본적인 원리로 삼고, 다시 음양의 두 기운을 춘하추동 사계절에 분배해서 음양의 실질적인 사시 운용 규율로 삼으며, 이를 또 다시 정치행위인 刑罰과 恩德의 시행을 연계시킨 것이다. 사계절인 춘하추동은 목화금수로 대표된다. 춘하는 陽이고, 추동은 陰이며, 陽은 德이고 陰은 刑이다. 봄과 여름에는 生과 長을 주재하니 德이고, 가을과 겨울은 收와 藏을 주재하니 刑이다. 이는 음양과 사시와 형덕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시령의 근본을 하늘의 두 기운인 동지와 하지로 나누는 음양과 인간이 느끼는 실질적인 운행인 사시로 보고, 정령을 크게 德과 恩賞을 베푸는 것과 刑과 罪罰을 행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정령은 음양과 사시의 운행 규율에 부합되게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政畝가 천지자연의 원리에 맞으면 福이 되고 맞지 않으면 禍가 된다. 특히 군왕의 政畝는 時宜에 맞아야 德政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령으로서의 군왕의 행위와 시령으로서의 하늘의 규율이 서로 조화로운 상황에서 원만한 和諧가 이루어져야 정치가 안정되고 백성이 부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63) 『管子』, 「四時」, “令有時.無時則必視順天之所以來.五漫漫.六昏昏.孰知之哉.唯聖人知四時.不知四時.乃失國之基.”

64) 『管子』, 「四時」, “陰陽者.天地之大理也.四時者.陰陽之大經也.刑德者.四時之合也.刑德合於時則生福.詭則生禍.”

65) 張固也, 『管子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6, 290쪽.

문에 順時와 政事는 일종의 천지의 도이고, 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위정자의 의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봄은 陽氣가 올라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生한다. 여름은 오르는 것을 마치므로 만물이 長한다. 가을은 陰氣가 내려가기 시작하므로 만물이 收한다. 겨울은 陰氣가 내려가는 것을 마치므로 만물이 藏한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은 生長하고 가을과 겨울은 收藏하니 四時의 節令이고, 賞賜와 刑罰은 主君의 節令이다.⁶⁶⁾

이는 時令에 대하여 각 계절별로 자연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에 순응하여 賞과 罰·德과 刑을 시행해야 하는 主君의 節度를 설명한 것이다. 만물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봄과 여름에는 德과 관련한 政令을 시행하고, 만물이 결실을 맺어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가을과 겨울에는 刑의 政令을 시행해야 하는 것이 主君의 도리이다.

IV. 道德的 天命의 實現과 時令

1. 食貨와 富民

食과 貨는 백성의 물질생활에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덕치의 구호가 아닌 실천 범주에 속한다. 이는 주왕 조 초기 천명을 부여받아 장기적으로 안정된 통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식으로 봐야 할 것이다.

八政은 첫째는 먹는 것(식량)이요, 둘째는 재물이요,……⁶⁷⁾

食은 농작물과 五穀과 같은 먹을 수 있는 물건을 말하고, 貨는 입을 수 있는 布帛과 金刀龜貝를 말하는데, 이 둘은 生民의 근본이다.⁶⁸⁾ 먹는 것은 사람이 생존을 위해 없으면 안되는 것이고, 재물은 생활을 위해 없으면 안되는 것이다. 관중은 이러한 食과 貨는 백성이 의뢰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특히 중시하였다. 安逸함에 놀지 않고 耽樂에 어지럽히지 않고, 백성이 농사에 중시하는 일의 어려움과 수고로움을 아는 것이⁶⁹⁾ 덕치의 시작이다.

백성이 의뢰하여 생활하는 것은 옷과 먹을 것이다.⁷⁰⁾

66) 『管子』, 「形勢解」, “春者.陽氣始上.故萬物生.夏者.陽氣畢上.故萬物長.秋者.陰氣始下.故萬物收.冬者.陰氣畢下.故萬物藏.故春夏生長.秋冬收藏.四時之節也.賞賜刑罰.主之節也.”

67) 『書經』, 「周書」, 「洪範」, “八政.一曰食.二曰貨.……”

68) 孫星衍(撰), 『尚書今古文注疏』, 北京: 中華書局, 2016, 300쪽.

69) 『書經』, 「周書」, 「無逸」, “君子所其無逸.先知稼穡之艱難.”

곡식이라는 것은 왕의 근본 사무이고, 군주의 큰 임무이며, 백성을 소유하는 길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道이다.⁷¹⁾

백성의 물질생활의 근본은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다. 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한 요령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군왕은 백성의 상황을 상세하게 파악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하면 국가가 부강하다는 징표이고, 이와 반대이면 국가가 빈곤하다는 징표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은 식량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니, 식량을 생산하지 않는 나라는 망하고, 식량을 쓰기도 남음이 있는 나라는 부강하게 되어, 국가를 떠나 유랑하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거뒀던 재물이 다시 모여들게 된다. 따라서 식량은 군왕의 가장 큰 급선무 가운데 하나이다.

이와 같이 食과 貨를 풍부하게 하면 백성이 부유하게 되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을 다스리기 쉬우면 또다시 나라가 안정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니, 자연스럽게 德治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道는 반드시 富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백성이 부유하면 다스리기 쉽고 백성이 가난하면 다스리기 어렵다.……이 때문에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富民을 최우선으로 한 연후에 다스린다.⁷²⁾

관중은 食과 貨를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기반으로 ‘富民’의 단계까지 발전해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백성이 부유해야 국가 정책을 잘 따르고 다스리기 쉽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백성이 곤궁하면 각지로 유랑하거나 무리지어 반역을 꾀하니 다스리기 어렵게 된다. 백성이 부유하면 국가와 가정을 중시하고, 국가 법령을 잘 지키며 죄를 지어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 결과로 다스리기가 쉽게 된다. 그러나 백성이 가난하면 국가와 가정을 위태롭게 하며 뒷사람을 능멸하고 禁令을 위반한다. 잘 다스려진 나라는 항상 부유하고 잘 다스려지지 않은 나라는 항상 빈곤하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전쟁을 하여도 승리할 수 있고, 이와 반대로 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전쟁에서 반드시 패할 것이다.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바로 富民에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민 정책은 國君의 治亂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국가의 存亡과 盛衰와도 관계된다.⁷³⁾

이와 같이 富民이 국가의 치란과 흥망성쇠의 요건이라면, 이를 경제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농사를 장려하는 것이다.

나라가 부유하고 식량이 많은 것은 농사에서 생겨난다. 그러므로 先王이 귀중하게 여겼다. 무릇 나라를 다스리는 급선무는 반드시 먼저 未作과 文巧를 금해야 한다. 말작과 문교가 금해지면 백성이 늘

70) 『管子』, 「禁藏」, “夫民之所生. 衣與食也.”

71) 『管子』, 「禁藏」, “粟者. 王之本事也. 人主之大務. 有人之塗. 治國之道也.”

72) 『管子』, 「治國」, “凡治國之道. 必先富民. 民富則易治也. 民貧則難治也. ……是以善爲國者. 必先富民. 然後治之.”

73) 張華, 『『洪範』與先秦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231쪽.

고 먹는 바가 없어지고, 백성이 높고 먹는 바가 없으면 반드시 농사에 힘쓴다.⁷⁴⁾

이는 관중이 농사에 힘쓰면 나타나는 선순환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우선 먼저 농사를 소홀하게 하는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가령, 상공업과 같은 末作과 奢侈와 淫行을 조장하는 文巧와 같은 것을 엄금하면 백성이 높고 먹는 일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농사에 힘쓰게 된다. 농사에 힘쓰게 되면 노는 땅을 개간하여, 식량이 더욱 증산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 나라가 부유하게 되면 군사력도 강해져서 전쟁을 하여도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백성이 늘어나고 군사력이 강해지며 땅이 넓어지고 나라가 부유해지는 것은 반드시 식량에서 생겨난다.

食과 貨는 稼穡을 권면해서 풍부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國富와 民足を 이룰 수 있게 되니,⁷⁵⁾ 이것이 바로 富民이고 保民이며 정치적으로 덕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덕치의 실현은 백성의 물질생활과 정치질서의 필요와 안정에 기초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2. 五行과 時令

오행의 기원에 대해서는 天源說 · 五方源說 · 五材源說 등 이론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⁷⁶⁾ 오행에 대한 초기의 관념이 백성의 실생활과 관계됨은 『書經』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⁷⁷⁾

德은 정치를 선하게 하고 정치는 백성을 기쁨에 있으니, 목화금목토와 곡식이 잘 닦여지며, 正德과 利用과 厚生이 和하여……⁷⁸⁾

덕은 단지 선하기만 해서는 안되고 정치를 잘 펼칠 수 있어야 하고, 정치는 단지 백성을 통치만 해서는 안되고 잘 양육하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⁷⁹⁾ 수화목금토는 상호간에 상승상생 작용을 일으켜 五穀을 생산하니 과부족이 없어야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섯가지 재료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善政을 펼치는 것은 오행과 곡식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행은 첫 번째는 水이고, 두 번째는 火이고, 세 번째는 木이고, 네 번째는 金이고, 다섯 번째는 土이다. 수는 潤下이고, 화는 炎上이고, 목은 曲直이고, 금은 從革이고, 토는 이에 稼穡을 한다.……⁸⁰⁾

74) 『管子』, 「治國」, “富國多粟生於農.故先王貴之.凡爲國之急者.必先禁末作文巧.末作文巧禁.則民無所游食.民無所游食.則必農.”

75) 張力, 『管仲評傳』, 四川: 四川大學出版社, 2005, 261쪽.

76) 謝松齡, 『天人象』,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1989, 28~29쪽.

77) 『書經』에서의 오행 관련 기록은 「大禹謨」 · 「甘誓」 · 「洪範」에 보인다. 다만 이 편들에 대한 偽書 논쟁은 본 논문의 연구 방향과 현격하게 다르므로 다루지 않는다.

78) 『書經』, 「虞書」, 「大禹謨」, “德惟善政.政在養民.水火金木土穀.惟修.正德利用厚生.惟和……”

79) 『書經集傳上』, 「虞書」, 「大禹謨」, 앞의 책, 85쪽.

80) 『書經』, 「周書」, 「洪範」, “五行.一曰水.二曰火.三曰木.四曰金.五曰土.水曰潤下.火曰炎上.木曰曲直.金曰從革.土爰稼穡.…….”

「홍범」편에서는 오행을 순서와 속성과 맛으로 대강을 분류하였다. 특히 염상과 곡직과 종혁은 성질로 말한 것이고, 토는 덕으로 말한 것이다. 가색은 심고 또 거두는 것이니 가색에 유독 德으로 말한 것은, 토는 오행을 겸하여 바른 위치가 없고 이루어진 성질이 없으며, 그 낳는 덕이 가색(농사)보다 더 큼이 없기 때문이다.⁸¹⁾ 오행 관념에 또다시 농사를 개입시켜서 백성의 실질적인 경제생활과 연계하였고, 오행을 사계절에 배합하여 해석함으로써 정치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령이 사계절의 변화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관자』에서의 음양오행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농업생산과 政敎시행을 연계하여 제시된 논술이다.⁸²⁾ 즉, 오행을 사계절에 배합시키고, 정령도 사계절에 맞게 시행하여 농업생산을 극대화한 것이니, 이는 政令과 時令이 습—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順天이고 順時이다.

동방을 暉이라 말하고 그 계절은 봄이라 말하고 그 氣는 바람이라 말한다. 바람은 木과 골격을 생한 다. 그 德은 기쁨으로 가득차 있고 만물을 시령에 맞게 나오게 한다.⁸³⁾

봄은 生을 주재하기 때문에 천지에 기쁨이 가득 차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농사준비를 하는 시기로, 제방을 정비하고 밭갈고 모종을 심으며, 다리와 물길을 수리하여 물이 잘 흐르게 한다. 人事에서도 원한을 풀어주고 죄수를 풀어주며 사방의 이웃과 교통한다. 이도 또한 쓸데 없는 분쟁을 만들어 봄농사에 인력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방을 日이라 말하고 그 계절은 여름이라 말하고 그 氣는 陽이라 말한다. 陽은 火와 氣를 생한다. 그 德은 은택을 베풀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⁸⁴⁾

여름은 長을 주재한다. 따라서 모든 정령이 백성의 경제활동이 성장하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가령, 상을 내리거나 벼슬과 녹봉을 올려주는 것과 같이 왕의 은택이 백성에게 미쳐서 즐거움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陽氣가 북돋아지면, 큰 더위가 오고 비가 알맞게 내려서 오곡백과가 잘 성장하게 된다.

중양을 土라 말하고 토의 덕은 사계절을 실질적으로 돕고 바람과 비로 사시의 運行을 촉진하며, 도의 氣를 조절하여 생산력을 배양시킨다. 토는 가족과 살을 생한다. 그 덕은 和平하고 均衡하며, 중정하고 사사로움이 없으니 사계절을 실질적으로 돕는다.⁸⁵⁾

81) 成百曉(譯註), 『書經集傳下』, 「周書」, 「洪範」, 위의 책, 57~58쪽.

82) 巫寶三, 『管子經濟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5쪽.

83) 『管子』, 「四時」, “東方曰暉. 其時曰春. 其氣曰風. 風生木與骨. 其德喜羸. 而發出節時.”

84) 『管子』, 「四時」, “南方曰日. 其時曰夏. 其氣曰陽. 陽生火與氣. 其德施舍修樂.”

85) 『管子』, 「四時」, “中央曰土. 土德實輔四時. 入出以風雨. 節土益力. 土生皮肌膚. 其德和平用均. 中正無私. 實輔四時.”

만물이 봄에는 생겨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저장한다. 이러한 사계절이 순환하고 변화하는 과정에 토의 기운이 알맞게 개입되면 마치 음양의 두기운이 화합되는 것과 같이 비가 내린다. 정령도 토의 덕을 본받아서 시행해야 한다. 형벌을 내리거나 恩賞을 베풀어 농사에 지장이 있도록 하면 안된다. 德政을 크게 선양하고 사형집행을 너그럽게 하며 죄인을 풀어주는 등 살육을 하지 않으면, 답답하게 맺힌 天氣가 시원하게 풀려 초목이 잘 자라고 오곡이 팍차며 육축이 잘 번식한다. 일년 농사의 功은 이러한 토의 德으로 이루어지니, 이를 歲德이라 말한다.

서방을 辰이라 말하고 그 계절은 가을이라 말하고 그 氣는 陰이라 말한다. 음은 金과 껌질을 생한다. 그 德은 근심과 슬픔·고요하고 바름·엄숙하고 회순함이고, 거처함에 감히 淫佚하지 않는다.⁸⁶⁾

가을은 收를 주재하기 때문에 봄과 여름의 외형적 生長을 멈추고 內實을 기하는 시기로, 오곡백과가 튼실하게 익어가니 秋收를 해야 한다. 가을과 겨울은 陰이고 刑이니 정령도 이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가령 백성으로 하여금 음란하고 포악하지 않게 하고, 농한기에 맞게 군사를 조련하고 병장기를 수리해야 한다. 또한 백성의 財力에 맞게 거두어 축적하고 창고를 수리해야 한다.

북방은 月이라 말하고 그 계절은 겨울이라 말하고 그 氣는 寒이라고 말한다. 寒은 水와 피를 생한다. 그 德은 순박하고 청순함·온화하고 용서함·주도면밀함이다.⁸⁷⁾

겨울은 藏을 주재한다. 만물이 歸藏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의 정령은 관문을 닫고 상인과 나그네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여 地氣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래야 다음해 농사를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가을과 겨울은 刑을 주재하니, 刑獄을 결단하고 罪罰을 처리하며 죄있는 자를 풀어주지 않음으로써 陰氣에 부합해야 한다. 활과 화살을 만들어 禽獸를 사냥한다. 이는 사냥하면서 군사훈련을 겸해서 실시하는 의미도 있지만, 다가올 봄철에 禽獸로부터의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뜻도 있다.

봄과 여름은 德이 주재하니 生長과 관련한 정령을 시행하고, 가을과 겨울은 刑이 주재하니 收藏과 관련한 정령을 시행해야 하는데, 모두 농사와 관련이 깊다. 봄과 여름은 씨뿌리고 논밭을 가는 때이므로 막대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군사를 동원하거나 獄事를 결단해서 인력이 부족하게 해서는 안된다. 또한 논밭에서 오곡이 자라고 禽獸들이 번식하는 때이므로 陣法과 같은 군사훈련을 해서 이를 방해하면 안된다. 같은 이치로 가을과 겨울은 추수하고 창고에 저장하는 때이므로 세금을 걷거나 창고를 수리하는 등 刑과 관련한 정령을 시행해야 한다.

성왕은 때를 힘쓰고(務時) 政令을 시행해야 하고……이 셋은 聖王이 天地의 운행에 합하는 까닭이

86) 『管子』, 「四時」, “西方曰辰. 其時曰秋. 其氣曰陰. 陰生金與甲. 其德憂哀靜正嚴順. 居不敢淫佚.”

87) 『管子』, 「四時」, “北方曰月. 其時曰冬. 其氣曰寒. 寒生水與血. 其德淳越溫恕周密.”

다. 日은 陽을 管掌하고 月은 陰을 관장하고 星은 和를 관장한다. 陽은 德이고 陰은 刑이고 和는 政事이다.⁸⁸⁾

군왕이 정사를 펼칠 때에는 반드시 時宜에 순응하기를 힘써야 한다. 時令에 맞지 않는 정사를 펼치면 봄에 오곡의 잎이 마르고, 가을에 꽃이 피고, 겨울에 우레가 치고, 여름에 서리와 눈이 내리는 것과 같은⁸⁹⁾ 災異의 자연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천지의 운행은 사계절의 변화로 나타나고, 사계절의 봄과 여름은 陽이고 德이며 가을과 겨울은 陰이고 刑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행변화 질서에 합하여 政令을 펼치는 것이 德治의 실질적인 실현 방법일 것이다. 특히 고대사회는 농업이 경제생활의 중심이고, 농사는 사계절의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계절의 변화가 백성의 경제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정령이 시령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농사를 위한 것이고 富民을 위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德治의 구체적인 실현 방법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논지는 『書經』의 ‘천명’과 『管子』의 ‘務時’의 상관관계를 도덕적 천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 차원에서 논술을 진행하였다. 논지는 『書經』을 통해서는 천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德治를 시행하는 것이고, 이 덕치를 실현하는 길이 ‘保民’에 있고, 稼穡(농사)의 어려움을 아는 것이 보민의 길 가운데 하나임을 논술하였다. 『管子』를 통해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길이 ‘富民’에 있고, 이 부민은 농사를 중시하는 政令을 시행하는 것이고, 농사는 사계절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각종의 정치명령이 時令에 합당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논술하였다. 바꿔 말하면 군왕의 도덕적 천명을 실현하는 방법은 順時에 있다는 의미이다.

천명관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었으나, 이를 덕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은 殷周의 교체기로부터 시작하였다. 殷代에도 天 관념은 존재하였으나 인격화된 개념이 아니었고, 지상신인 상제가 은왕을 保佑한다는 관념이었다. 주의 천명관은 내우외환을 극복하고 주왕족의 장구적인 치안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적 우환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周公은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 속에서 역사 발전의 인과관계를 발견하여 그 안에 내재된 법칙성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바로 ‘命不于常’·‘天不可信’·‘惟德是輔’이다. 이는 중국의 고대 정치에서 덕 관념이 최초로 전면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매우 크다.

관중은 일찍이 목민자는 四時에 순응하기를 힘써야 하고 창고를 충실하게 하여야 함을 역설하였고, 곡식 자체를 나라를 다스리는 道라고 하였다. 곡식은 백성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기초이기 때문에 군왕은 이를 반드시 풍족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곡식의 생산 주체인 백성이 稼穡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군왕은 국가의 정치명령을 農時에 부합되게 시행해야 한다. 만약 四時の 변화에 맞지 않는 정치명령을 내려 백성

88) 『管子』, 「四時」, “聖王務時而寄政焉.……此三者聖王所以合於天地之行也.日掌陽.月掌陰.星掌和.陽爲德.陰爲刑.和爲事.”

89) 『管子』, 「四時」, “春潤.秋榮.冬雷.夏有霜雪.”

이 곡식생산을 할 수 없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라의 根基를 잃는 것이 된다.

천명은 天意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도덕적 준칙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시령은 백성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백성이 의뢰하여 생활하는 것은 衣食이다. 따라서 천명을 실현한다는 것은 덕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한다는 것으로, 이는 백성의 생활기초인 의식을 풍족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백성의 의식을 풍족하게 하여 富民의 정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時令에 순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천명이 바로 順時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다만 『관자』의 「四時」와 「五行」편에서는 천명과 순시 사이를 陰陽五行이 매개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관자』의 時令 관념은 『여씨춘추』·『회남자』·『춘추변로』 등으로 계승되었고, 후대에 月令思想으로 발전하게 되어 『사민일령』 등과 같은 治國方略의 하나로 활용되었으며, 順時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祥瑞와 災異 등의 天象을 天意가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천인감응설로도 발전하였다.

〈參考文獻〉

1. 原典資料

『書經』, 『詩經』, 『管子』, 『論語』, 『史記』.

2. 單行本

김충렬, 『중국철학사1·중국철학의원류』, 예문서원, 1994.

바이시(지), 이임찬(역), 『직하학연구』, 소나무, 2015.

尹乃鉉, 『商周史』, 민음사, 1984.

葛榮晉, 『先秦兩漢哲學論考』,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郭鼎堂, 『先秦天道觀之進展』, 上海: 商務印書館, 1935.

巫寶三, 『管子經濟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9.

傅佩榮, 『儒道天論發微』, 臺北: 聯經出版社, 2010.

謝松齡, 『天人象』, 濟南: 山東文藝出版社, 1989.

成百曉(譯註), 『書經集傳上』, 傳統文化研究會, 2006.

成百曉(譯註), 『書經集傳下』, 傳統文化研究會, 2006.

孫星衍(撰), 『尚書今古文注疏』, 北京: 中華書局, 2016.

王國維, 『觀堂集林 上』, 上海: 上海書店, 1992.

王保國, 『兩周民本思想研究』, 北京: 學苑出版社, 2004.

劉澤華, 『中國政治思想通史·先秦卷』,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4.

陳夢家, 『殷墟卜辭綜述』, 北京: 中華書局, 2008.

- 張連偉, 『管子哲學思想研究』, 四川: 巴蜀書社, 2008.
- 張華, 『『洪範』與新先秦思想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4.
- 張固也, 『管子研究』, 濟南: 齊魯書社, 2006.
- 張力, 『管仲評傳』, 四川: 四川大學出版社, 2005.
- 陳來, 『古代宗教與倫理』, 北京: 三聯書店, 2017.

3. 論文

- 金明河, 「中國 先志四家的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사학위논문, 1994.
- 김태명, 「管子的 정치경제사상에 관한 고찰」, 『유라시아연구』 5, 2008.
- 서정화, 「殷周代 上帝 관념과 周代 禘 의례의 관련성 및 그 변화 양상」, 성균관대학교대동문화연구원, 『대동 문화연구』 95, 2016.
- 孫世濟, 「天道觀의 변천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학사학위논문, 1992.
- 宋寅昌, 「先秦儒學에 있어서의 天命思想에 관한 研究」, 충남대학사학위논문, 1987.
- 윤대식, 「경세가 管仲과 텍스트 『管子』 사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22, 2016.
- 이명재, 「『管子』의 陰陽五行論」, 단국대동양학연구원, 『東洋學』 69, 2017.
- 李澤龍, 「중국 先秦 시대의 命論 研究」, 성균관대학사학위논문, 2012.
- 임헌규, 「天命과 倫理」, 온지학회, 『溫知論叢』 30, 2012.
- 장승구, 「『管子』의 철학사상 연구」,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논집』 45, 2015.
- 장현근, 「중국 고대정치사상에서 천명 관념의 등장과 군권의 정당화」, 중국학연구회, 『중국학연구』 73, 2015.
- 白奚, 「中國古代陰陽與五行說的合流」, 『中國社會科學』 5, 1997.
- 李忠林, 「皇天與上帝之間」, 『史學月刊』 2, 2018.
- 李競恒, 「天命中的王權與神祇」, 『書屋』 12, 2017.
- 李友廣, 「先期天命觀念溯源」, 『理論界』 2, 2009.
- 張立文, 「管子道德和合新釋」, 『社會科學戰線』 2, 2010.
- 張越, 「『管子』富民思想及其現代價值」, 『齊魯學刊』 6, 2017.
- 趙清文, 「論『管子』的“以人爲本”思想」, 『管子學刊』 4, 2004.

* 이 논문은 2018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8년 9월 28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8년 10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10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an-Ming(天命) of 『Shu-Jing(書經)』 and the ‘Wu-Shi(務時)’ of 『Guan-Zi(管子)』

- Focusing on the Meaning of Moral Tian-Ming and Realization Method

Oh, Cheongsi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an-Ming(天命)’ of 『Shu-Jing(書經)』 and the ‘Wu-Shi(務時)’ of 『Guan-Zi(管子)』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crete realization method of moral Tian-Ming. The time of the transition from the Yin(殷) Dynasty to the Zhou(周) Dynasty is of great significance on the side where the viewpoint of the Tian-Ming changed morally. Tian-Ming is not only constant but also unbelievable, and the only precondition that can be granted is ‘the rule of virtue(德治).’

Guan-Zhong(管仲) thought the precondition of ‘Wu-Shi(務時)’ is the humanity and the humanity is realized through the ‘Bu-Min(富民)’. In addition, ‘Bu-Min’ is in ideal state of rich in the country and rich in food and cloth for people and is realized through farming as the basic economic activity for people. Because farming is most influenced by the changes of four seasons a year. And it is the duty of ruler to adjust the changes of four seasons and to practice the good policies for people.

‘Tian-Ming’ is an interpretation of who granted the supreme power by the ‘Tian(天)’, and the only way to possess the supreme power is to realize ‘the rule of virtue’, and ‘the rule of virtue’ is accomplished by the complete compliance with four season’s change. Ruler tried his best lest that he should disturb the people’s economic activity such as farming.

In conclusion, ‘Tian-Ming’ can be called ‘Shun-Shi(順時)’, especially concept of 『Guan-Zi』’s ‘Wu-Shi’ is a concrete realization method of moral Tian-Ming.

[Key Words] 『Shu-Jing(書經)』, 『Guan-Zi(管子)』, Tian-Ming(天命), ‘Wu-Shi(務時)’, ‘Bu-Min(富民)’, Yin-Yang(陰陽), Wu-Xing(五行)

* A Part-Time Lecturer, Wonkwang University

